

"빛나는 밤" 레드 카펫의 날



레드 카펫의 날이었던 "빛나는 밤"은 2025년 2월 7일 인도 가히리와 락사울에서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14세에서 50세 사이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조직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파트나 노틀담 수녀들이 관리하는 가히리의 73명, 마살 협회가 관리하는 락사울의 74명이 왕과 여왕으로 선정되어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 날은 특별 손님(장애인)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특별한 손님으로 97명의 남성과 50명의 여성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이 입장할 때는 그날 입을 아름다운 새 의복을 받았습니다.

"레드 카펫 데이" 프로그램은 행렬을 지어 온 "특별 손님"을 환영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각 게스트는 환호와 박수로 청중에게 소개되었습니다. 레드 카펫 "에스코트"는 각 게스트에게 띠를 두르고 각 게스트를 그날의 왕 또는 여왕으로 선정했습니다. 색종이가 쏟아지고 "사랑합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수많은 왕과 여왕을 축하하고 그들이 얼마나 사랑받는지 나누는 일년 중 기억에 남는 행사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불우하고, 사회에서 원치 않는 사람들을 "빛나는 밤" 행사에서 찾아 주류에 소개하여 그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돌봄을 받고, 존중받는지 보여주며, 차별 없이 살아갈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손님"들이 영예를 얻고 왕관을 썼을 때 표현된 기쁨과 만족스러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 성명인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데 투신한다"에 따라 이 "빛나는 밤" 이벤트를 지원해 준 팀 테보우 재단에 감사를 표합니다. 포용적인 삶에 대한 존중과 함께 사랑과 보살핌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 날이 특별한 사람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메리 앨리스 수녀님, 메리 루비 수녀님, 메리 디피카 수녀님,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의 기도와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전체 사명과 직원들은 이 행사를 기억에 남는 행사로 만들고 "인권과 존엄성을 옹호"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 여러 날 동안 수고해주었습니다.

메리 날리니 수녀, SND